

화엄사·전남도·구례군 지역발전 손 잡아

3월 9일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 발족

최근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찰이 지자체와 지역민들로 구성된 권역발전추진협의회를 발족해 눈길을 끈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는 3월 9일 화엄사 범음부에서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구례지역 발전과 화엄사권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한 준비에 나섰다.

행사는 주지 종삼 스님, 박민환 의장(전라남도 의회), 박민순 의장(구례군의회)을 고문으로 위촉하고, 종서 스님(화엄사 총무)을 회장으로 지리산남부관리사무소, 한화리조트, 마산면 이장단, 마산면 청년회,

황전리 청년회, KT지리산 수련관, 화엄사상가번영회, 순천대 지리산 문화연구원, 화엄사불교청년회 등 지역 생활주체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종삼 스님은 격려사에서 "화엄사의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상품과 먹거리, 즐길거리 개발을 위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서 스님은 회장취임 인사말에서 "화엄사는 불자들의 수행과 정진의 공간인 동시에 마산면 주민들에게는 생계와 연계된 관광문화자원이다. 근래에 화엄사권역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감소해 지역경기가

갈수록 침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협의회 회원들이 의견을 모아 야 전라남도와 구례군으로부터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얻어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회원의 참여를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박민환 의장도 인사말을 통해 "구례의 대표적 관광지인 화엄사권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관광객 감소 원인을 일반인들의 관광패턴 변화와 관광 상품 개발 미비, 진입도로와 주변환경 개선 부족, 인근 상가의 노후화 등을 주원인으로 꼽았다.



구례 화엄사는 3월 9일 화엄사에서 전남도, 구례군 등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다.

화엄사권역발전추진협의회는 지리산 입구의 대형안내관 설치, 화엄사 진입도로 정비, 지역주민이 운영 하는 상설문화공연, 남악회 활성화, 화엄사 진입도로의 꽃길 조성, 상권

활성화 방안, 화엄사 참배객 및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홍보, 산악 도시관(박물관) 등을 현안사업으로 책정하고 매월 정기모임을 열기로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선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김호진 회장

"불교·지역발전 선사모 앞장서요"

시와 예술의 고향이라는 고창도솔산 아래 오랜 역사와 빼어난 경관과 소중한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선운사.

새 봄을 맞아 붉은 허를 내밀며 관광객을 유혹하는 동백이 수많은 시인과 묵객들로부터 찬탄을 받은 선운사를 한시라도 잊지 못하고 아

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선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선사모 회장 김호진

선사모 회장 김호진

선사모 회장 김호진

선사모 회장 김호진

선사모 회장 김호진

선사모 명칭에 대해 김 회장은 "처음에 공무원불자회로 출발하려 했으나 타종교세가 강한 지역의 특성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해 참여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선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선사모 회원 중에는 조계종 포교사 등 불자는 물론 타종교인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김호진 회장은 "앞으로 회원

수를 더욱 늘려 고창지역 대표적인 선행단체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회원들과 함께 정기적인 문화강좌를 개최하고 함께 참여해 선사모를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선사모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산사체험, 다도체험, 발우공양, 산사음악회 등 선운사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할 것을 유도해 회원들간 유대감을 넓히고 많은 이들을 부처님 품안으로 이끌 예정이다.

김 회장은 "올 초부터는 매월 선운사에서 찾아 참선 정진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과 베품을 통한 자비의 실천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호진 회장은 "앞으로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서, 법원 등 공직 사회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불교발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는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063)563-1004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감사 대응보전 원형 회복

4월 11일 낙성법회

신라시대 도선 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월출산 도감사(주지 월우,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대응보전에 원형을 되찾았다.

도선 국사 창건 이후, 도감사는 조선조 1456년(세조 2년) 수미 왕사에 의해 966칸에 달하는 당우와 전각이 세워지고 12개 암자가 있던 대형사찰이었다. 이후 병자호란 등을 통해 많은 전각과 문화재가 유실됐다.

대응보전도 한국전쟁과 화재 등을 겪으며 소실과 중창을 거듭했다. 1977년 화재로 소실됐던 대응보전은 1981년 복원됐다.

월우 스님은 1994년 망가진 추녀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3칸이 아닌 5칸, 7칸일 수 있다는 기록에 주목했다. 5000만원 사재를 들여 대응보전 좌우의 유구를 발굴했던 스님은 지하 1m 가량에서 고려 초기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석과 적심석 등을 발견했다.

곧바로 문화재위원 9인을 위촉해 7차례의 고증을 거쳐 전남도와 영암군으로부터 24억을 지원받아 복원에 나섰다.

조동섭 기자



불사 4년만에 원형 복원된 월출산 도감사 대응보전.

불사 4년만에 복원된 대응보전은 외부 중층 내부 통층, 은칸 물림 방식의 74평 규모로 조선 초기 대표적 팔작지붕에 막새기와를 얹어 현대와 조화를 이룬 전통양식이다. 대응보전에 모셔진 삼존불은 10m 규모, 후불탱화는 높이 6m, 길이 11m 크기다.

월우 스님은 "서해안시대를 맞아 전남도청과 영암군의 지원으로 대응보전 중창낙성을 이뤘다. 불자들의 행복을 위한 정신적 귀의처로 기도정진 하는 천년도량으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출산 도감사 대응보전 복원불사 낙성 및 삼존불 점안법회는 4월 11일 오전 10시 봉행된다. (061)473-5122

조동섭 기자

전북도 불교대 학사일정 들어가

화엄·전북·이리 입학식

화엄불교대학을 비롯한 전북도내 불교대학이 일제히 입학식을 개최하고 새학기 학사일정에 들어갔다.

전북지역 대표적인 불교대학인 화엄불교대학(학장 원행, 금산사 주지)은 3월 7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법당에서 제21기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북불교대학(학장 한광수)도 8일 오후 불교학과, 법사과, 통신과정에 대한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리불교대학(학장 덕림, 관음사 주지)은 포교원 규정에 따른 12시간의 기초강좌를 마친 3월 29일 입학식을 개최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7일 열린 화엄불교대학 입학식은 학장 원행 스님과 전북불교회관 원감 보순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김진수 전북포교사단장, 이근재 화엄불교대학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신입생 등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새내기 입학생들을 격려했다.

원행 스님은 "화엄불교대학은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전법과 교육, 포교의 중심도량"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능동적·적극적·공정적인 사고로 이웃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승보살로 거듭 나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행 스님은 "이번 벚꽃관광열차 운행으로 금산사 일원의 벚꽃을 즐기는 상춘객들에게 기차여행의 낭만까지 즐길 수 있는 테마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개암사에 놓여온 버스 노선을 1월 2회 신설 운행한다.

개암사는 634년(백제 무왕 35)에 모련(妙蓮) 왕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신설되는 버스는 부안읍과 상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오전 9시 30분 부안읍을 출발해 오후 4시 개암사에서 부안읍으로 향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2개 버스 회사와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벚꽃관광열차 운행

"금산사 벚꽃 보세요"

전북 지자체들이 새봄을 맞아 관내 사찰을 방문하는 상춘객들을 위해 교통편을 신선했는 등 앞다투 편 제공에 나서고 있다.

금산사가 위치한 김제시는 모악산 벚꽃잔치가 시작되는 4월 10~12일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한 벚꽃관광열차를 운행해 상춘객을 맞는다.

원행 스님은 "이번 벚꽃관광열차 운행으로 금산사 일원의 벚꽃을 즐기는 상춘객들에게 기차여행의 낭만까지 즐길 수 있는 테마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군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개암사에 놓여온 버스 노선을 1월 2회 신설 운행한다.

개암사는 634년(백제 무왕 35)에 모련(妙蓮) 왕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신설되는 버스는 부안읍과 상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오전 9시 30분 부안읍을 출발해 오후 4시 개암사에서 부안읍으로 향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2개 버스 회사와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안군은 그동안 교통이 불편했던 개암사에 놓여온 버스 노선을 1월 2회 신설 운행한다.

개암사는 634년(백제 무왕 35)에 모련(妙蓮) 왕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 불편함이 많았다.

신설되는 버스는 부안읍과 상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오전 9시 30분 부안읍을 출발해 오후 4시 개암사에서 부안읍으로 향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2개 버스 회사와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문직 불자들이 자원봉사 나서

전북 공생봉사단 발대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지부장 원광)는 3월 7일 금산사 심원암에서 '지구촌공생회 전북 공생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에 나섰다.

간호사, 회계사, 공무원, 전기 기술자, 건설 기술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통음식 전문가, 컴퓨터 기술

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조직된 전북공생봉사단은 전북불교회관 무료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사찰 주변 환경정비와 화재위험이 많은 전기시설, 낙후된 주방시설 개편사업, 각종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 올해 안주 육련암 차나무 심기, 흥복사 연발 정비, 금산사 야생화 발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간호사, 회계사, 공무원, 전기 기술자, 건설 기술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전통음식 전문가, 컴퓨터 기술

자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조직된 전북공생봉사단은 전북불교회관 무료 경로식당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해 사찰 주변 환경정비와 화재위험이 많은 전기시설, 낙후된 주방시설 개편사업, 각종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우선 올해 안주 육련암 차나무 심기, 흥복사 연발 정비, 금산사 야생화 발 조성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복, 모듬북 · 장고 · 징 · 팽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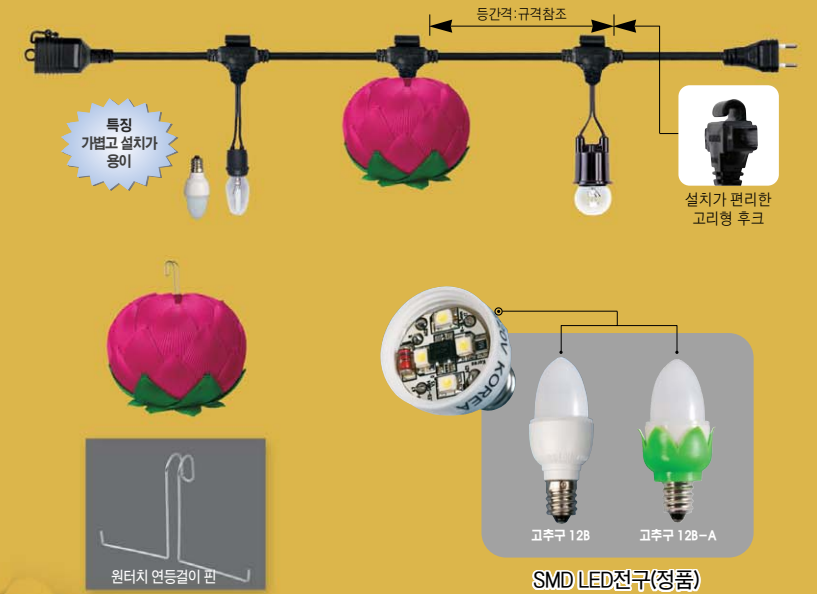


-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갑니다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 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양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율동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 초, 방생, 탐침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길이다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권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